불교, 오클라호마 지역 채식 문화 '선도'

부처님마음 사원, 제4회 채식 페스티벌 성료
지안 렌 스님 "채식은 자비 · 조화로운 삶의 길"


부처님마음(Buddha Mind) 사원이 11일~12일 이틀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의 대만불교 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채식 문화를 이끌며 부처님의 가르침도 함께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News OK' 는 "부처님 마음(Buddha Mind) 사원이 11일~12일 이틀간 개최한 채식 페스티벌(Veggie Festival)에 오클라호마시티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며 "이는 '부처님마음 사원' 이 지난 2012년 첫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한 이래 다양한 채식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채식 문화의 저변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채식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닌 하나의 생활 습관"이라고 전제한 지안 렌(Jian Ren) 스님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로 유명한 영화배우 벤 스틸러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윤리적 · 종교적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 영성의 도시로 꼽히는 오클라호마시티도 채식 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부처님마음 사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지안 렌 스님은 사실 오클라호마시티의 채식 문화의 정점에 서 있는 수행자이다. 부처님마음 사원이 '평화로운 다이어트, 평화로운 마음'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던 저력도 지안 렌 스님에게서 나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해 "지안 렌 스님이 채식 마스터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만 청 타이 찬(Chung Tai Chan) 사원에서 공부한 까닭"이라고 지적한 'News OK' 는 "스님은 청 타이 찬 사원에서 채식의 교리적 배경을 깊이 했고 실제 요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부처님마음 사원에 주석하면서 지역 사회에 불교 채식의 참 맛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News OK' 에 따르면 부처님마음 사원은 채식 페스티벌 외에도 △불자들이 참여하는 요리 콘테스트 △지역 간호사에게 채식 홍보 △지역 유명 요리사 초청 강연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지역 주민 약 3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채식 유행 아닌 '생활습관' 정착
벤 스틸러 등 헐리웃스타에도 인기
렌 스님 '채식' 지역사회 전파
무료 채식뷔페서 조리법도 배워

"육식은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채식은 생명의 순환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지안 렌 스님은 "채식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새로운 삶의 길"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죽임의 구조를 바꾸고 상생을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할 때 세상은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채식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대표적인 야채 요리를 맛볼 수 있었던 채식 뷔페 코너였다. 채식 뷔페에서는 입장료 없이 음식 담을 그릇만 집에서 챙겨오면 누구나 각국의 야채 요리를 맛보고 조리법도 배울 수 있었다.

"최고의 두부요리를 맛보고 그 조리법도 배우고 싶어서 사원을 찾았다"는 메릴린 바사르(Marilyn Vassar) 씨는 "채식을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었지만 불교 수행자가 직접 진행하는 채식 페스티벌은 처음 참가했다"며 "올 연말에는 부처님마음 사원의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씨앗을 끊는 것"이라는 쟈넬 타림디오스키(Janelle-Talimdjioski) 씨는 "매년 부처님 마음 선원의 채식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생명을 피붙이라고 생각하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ews OK' 는 "식사는 나 아닌 것(음식)이 몸에 들어와 나를 이루는 통합의 과정인데 육식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는 지안 렌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미국의 영성 도시로 꼽히는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자비로워져라' '타인을 해치지 마라' 등 종교 경전에서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의 실천이 채식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안 렌 스님과 부처님마음 사원의 노력으로 오클라호마시티의 주민들이 지구 환경을 먹을거리와 연계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청두서 1200년 전 불교 정원 발견

당나라 시대로 추정… 정중사와 밀접 관계 추정


중국 쓰촨성 청두시서 당나라 시대 추정 고대 불교 정원이 발견됐다. 이 유적은 고분 18기와 우물 1개, 구덩이 8개, 수로 3개, 욕조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에서 1,2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정원(Buddhist garden) 유적이 발견됐다.

'China Daily' 는 13일 "당나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불교 정원이 청두시 퉁진루(通錦路)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이 유적은 고분 18기와 우물 1개, 구덩이 8개, 수로 3개, 욕조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 · 보살상 일부로 추정되는 석조 파편, 건축 부속물, 대규모 생활용 도자기 등도 출토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의 문화유적이 풍부하게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굴단을 이끌고 있는 이 리(Yi Li · 고고학 박사) 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유적이 당나라 및 오대(五代) 시기의 불교 정원 건축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관료들 다수가 자택과 별장에다 연못을 파고 언덕을 쌓아 꽃나무와 돌을 배치하는 등 인공 정원을 건축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는 이 유적이 만불사(萬佛寺)의 전신인 당시 정중사(淨衆寺)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추정하고 있다.

'China Daily' 는 고고학계의 말을 인용, "현재 쓰촨성 박물관에 있는 남조시대 조각상은 만불사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많다"면서 "이 지역 일대가 당시 정중사의 정원이었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 '도시 영웅상' 수상

아시아계 이민자 정착 12년간 꾸준히 도와


대만의 국제적인 불교복지재단인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토론토 시에서 주관하는 '2015 도시 영웅상' 을 수상했다. 토론토 시당국에 따르면, 토론토 지부는 지난 12년간 아시아계 이민자 정착을 적극 도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투치(Tzu Chi)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2015 도시 영웅상(Urban Hero award winner)' 을 수상했다.

'Inside Toronto' 는 4일 "대만의 대표적인 불교복지재단인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토론토시에서 수여하는 '2015 도시 영웅상' 의 영예를 안았다"고 보도했다.

토론토 시당국은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의 2015 도시 영웅상 수상은 지역 사회 이민자의 정착을 꾸준히 도왔던 지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설립 12년째를 맞은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는 현재 100여 명의 자원봉자들이 봉사 · 의료 · 교육 · 교양 등 네 부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투치 재단은 글로벌 조직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주민들과 교감하기 위해 각각의 방법론을 펴고 있다"고 전제한 자원봉사자 테레사 리오(Theresa Liao) 씨는 "토론토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데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게 토론토 지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이라며 "봉사 대상자는 종교를 떠나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Inside Toronto' 에 따르면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는 도심 노숙자 겨울 의류 제공, 직장인 미혼모 교통 카드 제공, 문맹 퇴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워털루(Waterloo), 키치너(Kitchener), 세인트 캐서린(St. Catharines)시까지도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벽돌 쌓아 사찰 건립 '만능 손' 스님

틱광탄 스님, 분재 · 건축 등 손수 도량 관리

스스로를 '팔방미인(a jack of all trades)' 이라고 부르는 스님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춰 바오 광(Chua Bao Quang) 사원 주지 스님은 산타아나 뉴홉 거리에 위치한 약 2천 5백 평 사찰 부지 건설사이자 관리자로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최근 이 스님이 벽돌로 사찰 건축을 완성해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신문 'The OCRegister' 는 7월 11일 벽돌로 사찰 건물을 지은 틱광 탄(Thich Quang Thanh)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The OCRegister' 는 "지난 10여 년간 스님이 벽돌을 쌓아 절을 세웠다. 평소에도 스님은 직접 부처님 제단을 장식하고 분재 기술을 익혀 절 마당을 가꾼다"며 "1천만 신도를 보유한 이 사원은 탄 주지 스님의 예술적 비전으로 신도들을 이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탄 스님은 직접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로 기반을 다졌다. 벽은 나무판자로, 기둥은 화강암으로 세웠다. 'The OCRegister' 은 "탄 스님이 직접 건물을 짓기 위해 경내에서 측량하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귀했다"고 설명했다.

수공업으로 보시금 저축
불교공예품 수집에 투자
불교 박물관 건립 목표


틱광 탄(Thich Quang Thanh) 스님〈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춰 바오 광(Chua Bao Quang) 사원의 건물을 벽돌로 손수 지어 화제를 모았다.

신도 방밴 팜(Bang Van Pham)씨는 "스님이 스스로 절을 지음으로써 보시금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스님이 도량 내를 꾸밀 때 무계획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웃어보였다.

탄 스님은 "경내 물건의 4분의 1정도는 내 손으로 만들었다"며 "이로써 절약한 돈은 불교 공예품을 수집하는 데 모두 쓰고 있다. 신도들을 위한 불교 박물관을 짓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